



새로운 혁신의 시대에 기술사의 역할

金昌世
(Kim, Chang Se)

토목시공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e-mail : cskim@kictep.re.kr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저력 있는 나라이다. 그 속에서도 우리 기술인들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미래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추격,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기술장벽의 강화로 인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이 하락세를 걷고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한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이 지난해 165억 달러를 달성하고 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해외시장 점유율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최근 초고층건축물, 플랜트 사업 등으로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해외기업들과 경쟁하여 건설수주를 따내고 있지만, 심지어 중동지역에서조차도 중국의 해외건설수주액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날 우리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던 분야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 다른 국가의 추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산업현장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기술인이 21세기 변혁의 시대에 또다시 새로운 혁신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선점했던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분야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의 성장을 돕는 기반사업으로만 여겼던 건설교통분야 역시 지난해 국가차원에서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치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VC-10 사업 출범 등으로 2007년 여름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 기술사분들이 평가 및 자문 등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제2의 건설교통산업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이면서 I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개방화, 표준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표를 상실한 채 뜻을 올릴 수 없는 노릇이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제대로 인식하여 올바른 지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또 다른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술사들이 국가성장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뜻을 움직이는 기수가 되기를 기대한다.